

『택리지』의 지역서술에 대한 이해

「팔도총론」 경기편을 중심으로

김성현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과정, 인문지리 전공

fruitrue@naver.com

I. 머리말

II. 지역서술에 대한 구조적 접근

III. 지역서술의 '서론': 「팔도총론」 도입 분석

IV. 지역서술의 담론 구성: 「팔도총론」 <경기>편을 중심으로

V. 맺음말

I. 머리말

『택리지』는 18세기 중반 이래 널리 필사되어 소재가 확인된 이본만 160여종에 이른다.¹ 하지만 원본이 밝혀지지 않은 채, 1912년 최남선(崔南善)이 편수한 광문회본(光文會本)을 저본으로 『택리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근래 광문회본에 대한 검토와 함께 『택리지』 이본의 필사 연도와 계통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행해지고 있다.² 그것은 궁극적으로 『택리지』의 성격을 이해하는 것과 연관된다.

이중환(李重煥)은 『택리지』를 조선의 “산천과 인물, 풍속과 정치, 연혁과 치란, 득실과 미악(美惡)을 차례로 엮어 기록”하고 “살 만한 땅을 가리려 하지만 살 만한 곳이 없음을 한탄”³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중환의 삼종조(三從祖)인 이익(李瀾)도 『택리지』를 “사대부가 살 만한 곳을 구하려는” 책으로 거기에는 “산맥과 수세, 풍토와 민속, 재화의 생산과 수륙 운수 등이 정연히 쓰여 있다”⁴고 평하였다. 『택리지』는 조선 사회 전반을 이해하고 사대부가 거주할 만한 곳을 서술한 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익을 포함해 당대

-
- 1 소재를 확인하지 못한 개인 소장본까지 포함하면 『택리지』의 이본은 200여종에 이른다. 이중환 저, 안대회 외 역, 『완역정본 택리지』(휴머니스트, 2018), 34쪽.
 - 2 배우성, 「擇里志에 대한 역사학전 讀法: 필사본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한국문화』 33(2004); 최인실, 「『택리지』 초기 필사본 추정을 위한 서지적 고찰」, 『서지학보』 제40호(2012); 이도훈·김세호·임영길, 「『擇里志』 異本考」, 『대동문화연구』 제93집(2016); 안대회, 「이중환의 『택리지』 개정과 이본의 형성」, 『민족문화연구』 제79권(2018).
 - 3 李重煥의 발문(1751년). “是將我國山川·人物·風俗·政教·沿革·治否·得失·美惡, 而編次以記之耳 …… 是欲擇可居處而恨無可居處耳.”, 안대회 외 역(2018), 앞의 책, 517쪽. 본고에서는 광문회본(1912)을 텍스트로 하고, 『완역 정본 택리지』를 참조한다.
 - 4 李瀾의 서문(1751년). “今吾家輝祖纂成一書, 纒纒數千言, 欲得士大夫可居處, 其間山脈水勢風氣氓俗, 財賦之產, 水陸之委輸, 井井有別, 余未曾見也.”, 안대회 외 역(2018), 앞의 책, 394쪽.

지식인은 『택리지』를 논하면서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사대부의 거처를 가린다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이중환의 처조카인 목성관(睦聖觀)은 『택리지』가 “조선 팔도의 살 만한 곳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그 뜻이 어찌 여기에 있겠는가”⁵라며, 『택리지』에 다양한 내용이 실려 있음을 강조한다. 한편 홍중인(洪重寅)은 사대부의 거처를 논하는데 “어찌 지리와 생리를 닦할 수 있겠는가”하며, “(사대부) 자신이 어질다면 머물러 낙토가 아닌 곳이 없다”⁶고 비판한다. 그리고 「사대부가거처(士大夫可居處)」를 필사하면서 생리(生利) 조를 제외하였다. 것처럼 18-19세기 『택리지』는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되고 필사되면서 수많은 이본이 만들어졌는데, 20세기 초 최남선이 『택리지』를 편수하면서 『택리지』에 대한 평가는 일단락된다.

광문회본 서두의 해제에 따르면 『택리지』는 ‘인간과 땅’의 연관에 초점을 둔 ‘인문지리학의 시초’이다. 그리고 ‘풍수’ 관련 글도 일리가 있어 미신이라 할 수 없으며, “복토(福土)와 승지(勝地)가 많이 실려서” 널리 유포되고 이명이 많았다.⁷ 그러한 광문회본의 평가가 이후 『택리지』 연구에 영향을 주었고 조선시대 관찬(官撰) 지지와 구별되는 체재와 내용, 풍수지리에 기초한 입지론 성격 등을 강조하는 연구가 이어졌다.⁸ 그런데 광문회본의

5 睦聖觀의 발문(1752년). “擇里志者，則靑華山人所著也，今讀其書，則雖寓言於八域可居處，而其意豈爲是也.”，안대회 외 역(2018), 앞의 책, 518쪽.

6 洪重寅의 발문(1751-1752년). “又豈可專責於地理與生利耶.”; “故愚以爲士大夫處世居鄉，當先論主人翁之賢不肖，主人翁賢，則無住而非樂土.”，안대회 외 역(2018), 앞의 책, 521쪽.

7 『擇里誌』(光文會本). “此書出於實歷精討，地以論人，人以論事，利以相地，地以相居，尤致力於人地交與之際，蓋我東誌地書之最精要者，亦人文地理學之初發明也。或者以間有風水之說，歸之不經類，具一理頗有可闢，不可以迷信遽棄也。書中多福土勝地之載，流布頗廣，從以異名者多，八域志·山水錄·震維勝覽·總貨等稱是也。”

8 양보경, 「지역 정보의 보고, 지리지」, 『한국역사지리』(푸른길, 2011).
오상학, 『한국 전통지리학사』(들녘, 2015)

해제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택리지』를 “실제 경험하고 정밀히 검토”하여 저술된 책으로 평가한 점이다.

사실 이중환은 「복거총론」에서 “전라와 평안은 내가 보지 않았고, 강원·황해·경기·충청·경상은 내가 많이 보았다”고 밝히며 자신이 ‘본 것’과 ‘들은 바’를 헤아려 서술한다고 하였다. 이에 『택리지』는 이중환이 전라도와 평안도를 제외하고, 각지를 답사하며 지리정보를 수집해 정리한 지리지로 설명된다.¹⁰ 『택리지』에 실린 설화도 구비전승에 기반을 둔 기사이며, 대부분 현지에서 견문하거나 동시대 사람들로 부터 들은 것으로 추정된다.¹¹ 하지만 지역전설 40개를 도별로 분류하면 경기·경상도·전라도의 것이 많다.¹² 또 「팔도총론」에서 <경기>·<충청도>편의 서술이 압도적으로 많고 이어서 <경상도>·<전라도>편이며,¹³ 특히 <충청도>편의 경우 금강 일대가 상세히 서술된다.¹⁴ 이중환이 전라도와 평안도를 제외하고 각지를 가보았는

-
- 9 『擇里誌』 「卜居總論」, 57쪽. “夫全羅·平安, 則余所不見, 咸鏡·江原·黃海·京畿·忠清·慶尙, 余多見之矣. 以余所見, 參以所聞.”
 - 10 일례로 “이중환이 그의 성장과정, 관직 경력, 유배 생활, 이후 방랑 생활을 통해 지리 지식을 축적하였다.” 권정화, 「이중환의 국토 편력과 지리사상」, 『국토』 208(1999), 37쪽.
 - 11 안대회, 「『택리지』의 구전지식 반영과 지역전설 서술의 시각」, 『대동문화연구』 제93호(2016), 46쪽.
 - 12 지역전설에 대해서 ‘줄거리가 조리 있고 분량이 일정한 수준 이상’인 것으로, ‘서술이 간단하거나 역사적 실체가 분명한 것을 배제’하고 40개를 추출하였다. 안대회(2016), 위의 논문, 50-52쪽
 - 13 광문회본을 기준으로 <평안도>편 36행, <함경도>편 38행, <황해도>편 38행, <강원도>편 42행, <경상도>편 66행, <전라도>편 65행, <충청도>편 123행, <경기>편 130행이다.
 - 14 이중환이 금강 일대를 상술한 배경으로 ①일가 소유의 사송정(四松亭)이 금강 언변이었다. 사송정의 위치는 현재 충남 공주시 월송동으로 추정. 『擇里誌』 「八道總論」 <忠清道>. “然臨錦水爲亭者, 有四松·錦碧·獨樂. 四松即吾家, 錦碧爲趙尙書庄, 獨樂爲林氏舊物, 并有江山登眺之致.” ②저자가 황산강(黃山江) 팔괘정(八卦亭)에서 글을 썼다. 팔괘정은 현재 충남 논산시 강경읍 황산리에 위치. 李重煥의 발 “昔余在黃山江上, 夏日無事, 登八卦亭, 消暑, 偶有所論著.” ③연기현(燕岐縣) 소학동(巢鶴

데, 지역적으로 편중이 있는 것이다. 그 방증으로 『택리지』에 이중환이 직접 갔다고 서술한 부분이 많지 않다. 「팔도총론」 〈경기〉편에서는 두 곳으로, 양근(楊根) 미원촌(迷遠村)과 개성(開城) 대정리(大井里)에 대해 ‘내가 일찍이 보았다’고 쓰고 있을 뿐이다.¹⁵

현재 기록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이중환이 팔도의 지리정보를 어떻게 수집하였는지 추정하기 어렵다. 다만 그가 직접 현지를 조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으므로, 『택리지』는 답사와 청취 등의 경험과 더불어 다양한 자료를 통해 지리정보를 수집해 계통적으로 정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택리지』를 ‘텍스트(text)’로 이해하고 서술구조를 분석함으로써, 저자 이중환이 지리정보를 어떻게 체계화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 대상은 지리정보의 체계화가 잘 나타나는 「팔도총론」으로 한정하며, 특히 서술 분량이 가장 많고 행정적으로 우선되는 〈경기〉편을 중심으로 한다. 제Ⅱ장에서 텍스트 『택리지』의 서술구조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에 대해 설명한다. 이어서 제Ⅲ장에서 「팔도총론」 도입의 성격을 살펴보고, 제Ⅳ장에서 〈경기〉편의 서술구조를 분석한다.

Ⅱ. 지역서술에 대한 구조적 접근

『택리지』는 「사민총론」·「팔도총론」·「북거총론」·「총론」으로 구성되고 그 중 「팔도총론」은 도입과 팔도 편, 「북거총론」은 〈지리〉·〈생리〉·〈인심〉·

洞)에 이중환 직계의 선산이 있었다. 소학동은 현재 세종시에 위치.

15 『擇里誌』 「八道總論」 〈京畿〉, 34쪽. “楊根龍門山北有迷源村, 昔靜菴趙光祖愛山水, 欲卜居. 余嘗見之矣”; “余嘗見大井里故祠溫成后塑像與昌陵土城.”

〈산수〉로 구분된다. 『택리지』의 서술구조를 이해하는 데 먼저 「사민총론」에서 「총론」으로 이어지는 체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다. 그와 관련해 배우성은 광문회본을 검토하고 이본을 비교함으로써, 가상의 ‘표준형 『택리지』’와 ‘복거형 『택리지』’를 제시한다.¹⁶ 또 안대회 등은 이본의 필사와 계통을 검증하여 『택리지』의 정본을 제안한다.¹⁷ 하지만 원본이 분명하지 않아서 『택리지』 체제에 관해 제설이 있음을 밝히며, 본고에서는 「팔도총론」을 중심으로 서술구조를 분석하려 한다.

「팔도총론」은 일차적으로 도입과 팔도 편으로 구성된다. 도입은 팔도편의 서론에 해당한다. 『완역 정본 택리지』에서는 「팔도론」의 〈서설(序說)〉로 편성되어 있다. 도입의 내용과 역할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한편 팔도 각 편은 내용적으로 개략, 구역별 설명, 저자의 평가 등으로 구분된다.¹⁸ 개략(A) 부분에서 각도의 위치와 범위 및 연혁이 간략히 서술된다. 저자의 평가(C)에서는 도별 지형과 지세, 농사와 산물, 도시와 풍속 등이 논평된다. 주목할 것은 팔도 편 of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역별 설명(B)이다. 일례로 〈평안도〉편을 보면 군·현별로 지리정보가 나열되지 않고, 평양(平壤)과 강계(江界)를 중심으로 서술된다. 저자의 관점에 따라 구획되는 범위의 ‘구역’별로 구체화한 것이다.

따라서 팔도 편은 개략(A), 구역별 설명(B), 저자의 평가(C)로 구성된 도(道) 단위 지역서술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평안도〉·〈함경도〉·〈황해도〉·〈경상도〉·〈전라도〉편은 A-B-C 구성이며, 〈강원도〉·〈충청도〉·〈경기〉

16 배우성, 『독서와 지식의 풍경: 조선 후기 지식인들의 읽기와 쓰기』(돌베개, 2015), 2부 1장.

17 『완역 정본 택리지』에서 편목은 「서론」(사민총론), 「팔도론」(팔도총론), 「복거론」(복거총론), 「결론」(총론)으로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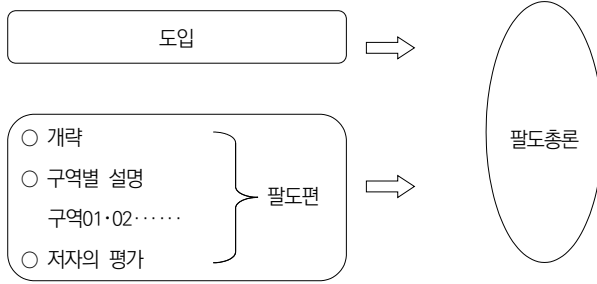
18 배우성은 「팔도총론」 팔도 편 of 내용을 지리역사와 총평(總評)으로 구분한다. 배우성(2015), 앞의 책, 173쪽.

편은 저자의 평가가 구역별 설명에 포함되어 A-B(C) 구성이다. 그리고 팔도 편 의 도 단위 지역서술에는 저자의 관점에 따라 구획되는 범위의 '구역'이 설정된다. 각 구역의 특정 장소를 중심으로 지리정보가 서술됨으로써 구역별 설명이 이루어진다. 저자가 설정하는 구역에 따라 구역별 설명의 범위도 변동된다. 즉, 도 단위 지역서술에서 구역별 설명은 '공간(space)' 담론(discourse)이라 할 수 있다.¹⁹ <평안도>편의 경우 도 단위 지역서술의 관점에서 보면 A-B-C 구성이면서, 구체적으로 A-B1(평양 중심)-B2(강계 중심)-C 구성이다.

「팔도총론」은 도입과 팔도 편 의 체계를 전제로 도별 개략, 구역별 설명, 저자의 평가 등의 내용을 갖춘 도(道) 단위 지역서술이며 구조적으로 복수의 담론들로 구성된다. 본고에서 담론은 내용 분석에 기초해 지역서술을 분절(分節)하고 단락(段落)을 설정함으로써 구체화한다. 그리고 단락은 지리정보의 배열과 관계성을 기준으로 설정된다. 즉 지리정보 중 지명을 표제어로 설정하고 지명 간 중심-주변 관계에 따라 단락을 설정한다. <평안도>편을 보면 저자는 평양에 대해 서술한 후 그 동쪽의 성천(平壤東爲成川府)과 서쪽 안주(平壤西百餘里爲安州)의 지리정보를 기술한다. 이에 평양을 '중심'으로, 성천과 안주를 포함해 관련 지리정보를 '주변'으로 하여 평양 중심 구역의 단락이 설정될 수 있다. 또 단락에서 지명 간 중심-주변 관계의 구분은 1차로 제한한다. 사실 평양 중심 구역 내에서 2차적으로 안주와 영변(安州東北爲寧邊府) 간 중심-주변 관계가 세분되지만, 표제어의 층위와 팔도 편 전체 적용되는 단락 설정 등을 고려해 각 단락에서 지명 간 중심-주변 관계의 구분은 기본적으로 1차로 한정한다.

19 『택리지』를 텍스트로 이해하고 분석한 연구로 신은경, 「지리공간의 담론화 과정에 대한 일고찰」, 『정신문화연구』 114호(2009).

〈지역서술의 구조〉



끝으로 지역서술의 구조에서 표제어로 기능하는 지명과 관련해 설명한다. 본고에서는 〈경기〉편을 중심으로 지명을 추출하고, 지명 간 중심-주변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지명 데이터베이스(DB)를 작성하였다. DB에는 지명의 속성, 위치, 구역 등의 항목(field)을 입력하는데 작성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명은 『택리지』에 기록된 한자 지명으로 한다. 둘째, 특정 위치의 지명이 다양하게 서술되는 경우에 대표지명을 설정한다. 일례로 개성(開城)은 개성부(開城府)나 송도(松都) 등으로도 서술되는데, 개성을 대표지명으로 하고 개성부와 송도 등은 통합해 정리한다. 대표지명의 표기에서 행정 단위인 도와 주·목·군·현을 생략하고, 읍(邑)·촌(村) 등은 표기한다. 셋째, 각 지명에 대해 기본적으로 하나의 레코드(record)를 작성한다. 특정 지명이 여러 구역에 걸쳐 서술되는 경우에는 실제 위치의 구역과 연계해 레코드를 작성한다. 단, 속성이나 위치 등이 변동하면 별도의 레코드를 작성할 수 있다. 이상의 기준에 따라 작성된 DB 구조(간략형)는 다음과 같다.²⁰

20 ①속성은 크게 행정·자연·인문 지명으로 나누고 각각 하위 속성을 설정해 세분한다. 행정지명은 도(LV1)와 주·목·군·현(LV2)으로 구분한다. 자연지명은 산지, 고개, 하천, 해양 등으로 세분한다. 인문지명은 군사, 교통, 촌락, 건축물, 능묘

| 지명 | 속성 | 위치 | 구역 | 텍스트 |
|----|--------|-----------------------|-------|-------------|
| 竹山 | 행정/LV2 |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405-2 | 경기_죽산 | 택리지_팔도총론_경기 |

「팔도총론」을 텍스트로 하여 그 서술구조를 분석해 보면, 「팔도총론」은 도입과 팔도 편의 체재를 전제로 하며 복수의 담론들로 구성된 도(道) 단위 지역서술이다. 특히 지역서술 중 구역별 설명은 저자의 관점에 따라 나뉘는 구역의 담론들로 구성되며, 구역은 지명 간 중심-주변 관계를 기초로 지리정보가 체계화된 단락을 범위로 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Ⅲ. 지역서술의 ‘서론’: 「팔도총론」 도입 분석

「팔도총론」에서 도입의 내용은 크게 둘로 나뉜다.²¹ 하나는 조선의 지형·지리·지세이고, 또 하나는 단군 이래 조선 건국에 이르기까지 연혁과 역사이다. 먼저, 지형과 관련해 이중환은 ‘조선산맥(朝鮮山脈)’의 대강을 서술한다. 즉, 곤륜산(崑崙山)을 기점으로 의무려산(醫巫閭山)과 요동(遼東)을 지나 백두산(白頭山)이 있다. 백두산은 천 리에 이어지고 두 강을 끼고 있으며, 남쪽에 영고탑(寧古塔)이 있다. 그리고 백두산을 기점으로 뻗은 줄기가 조선산맥의 으뜸이라고 쓰고 있다. 18세기 『해동지도』의 「조선여진분계도

등의 지명을 포괄한다. ②위치는 치소, 유적 등을 기준으로 한다. 위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향교 등 관련 시설의 위치를 반영하거나 20세기 전반 지형도 및 고지도 등을 참조해 추정한다. 자연지명의 경우 그 위치를 특정 지점에 한정할 수 없지만 서술 내용과 연관되는 지점으로 한다. ③구역은 각 지명이 서술된 단락에 따른다.

- 21 배우성은 도입 내용을 (1)곤륜산에서 조선으로 이어지는 산줄기, 팔도, 그리고 단군 이후 고려시대까지의 역사와 (2)고려시대에 사대부가 생겨난 경위를 설명한 부분으로 나눈다. 배우성(2015), 앞의 책, 174쪽.

」에서도 백두산은 혼동강(混同江: 현재 松花江)과 압록강 사이로 길게 늘어서 만리장성을 넘는 줄기로 그려져 있다. 지도의 주기에는 “백두산이 천 리에 걸치고 산 정상에 못이 있는데 그것이 남쪽으로 흘러 압록강이 되고, 동쪽으로 흘러 토문강이 되며, 북쪽으로 흘러 혼동강이 된다”고 쓰여 있다.²²

백두산을 기점으로 뺀 줄기가 조선산맥의 중심이라고 서술된 배경에는 18세기 백두산을 조종산(祖宗山)으로 보는 인식이 있다. 그것은 영조(英祖) 대 백두산에서 망사(望祀)를 지내면서 확립된다.²³ 주목할 것은 조선산맥의 기점인 백두산을 근원적으로 곤륜산과 이어진다고 기술한 점이다. 곤륜산은 『산해경(山海經)』의 ‘서산경(西山經)’에 등장하는 성산(聖山)으로 중국 서쪽에 위치하고 황하(黃河)의 발원이며, 중국 명산의 조종산으로 여겨졌다.²⁴ 그리고 “세상의 산맥이 이어지지 않은 것이 없으니, 백두산의 맥도 필히 곤륜산과 이어져”²⁵ 있다고 보았다. 그러한 인식을 반영하듯 백두산을 유람한 사대부들은 ‘백두산이 조선의 조종산이면서 곤륜산의 적자로 맑고 깨끗한 기상을 갖추어, 하늘이 조선에 기자(箕子)와 같은 성인을 보내시니 조선이 소중화(小中華)가 되었다’고 하였다. 백두산이 소중화의 배경으로 자리매김된 것이다.²⁶ 이중환 역시 『택리지』에서 중국 중심의 세계질서를 배경으로 곤륜산-백두산 관계를 구체화하고 있다.

이중환은 백두산 줄기의 ‘남쪽’, 실제로 동쪽에 위치한 영고탑도 언급한

22 『海東地圖』 「朝鮮女眞分界圖」. “明志曰, 橫亘千里, 高三百里, 其顛有潭, 周八十里, 南流爲鴨綠江, 東流土門江, 北流爲混同江”

23 『英祖實錄』 109권, 英祖 43년 윤7월 10일조. “禮曹請建閣行祭, 自明年正月施行, 上可之” 강석화, 「조선 후기 백두산에 대한 인식의 변화」, 『조선시대사학보』 56(2011), 207쪽.

24 南壺谷, 『扶桑錄』 「扶桑日錄」 九月小二十七日戊申. “崑崙之山突兀架空自天來, 中國名山以此爲祖, 輔佐而繼紹”

25 丁若鏞, 『與猶堂全書』 第六集地理集 第三卷疆域考 其三. “大瀛之內山脈, 無不相連, 白山之脈, 亦必與昆侖連也”

26 박찬승, 「백두산의 “민족 영산”으로의 표상화」, 『동아시아 문화연구』 55(2013).

다. 그 곳은 청 태조 누루하치의 발상지이자 1650년대 이래 만주 지배의 거점 중 하나였다.²⁷ 그 정치적 위상은 「조선여진분계도」에도 잘 나타난다. 개원(開元)부터 서쪽으로 길림시(吉林市) 서란(舒蘭)까지 유조변(柳條邊)²⁸이 이어지고, 유조변 아래 장성(長城)에서 영고탑에 이르는 도로가 선명히 표시된다. 그리고 영고탑 남쪽에 경하(鏡河:현재 鏡泊湖), 서쪽에 덕림석(德林石)이 크게 그려져 있다.²⁹ 1677년(康熙 16)에는 청국이 백산을 황가의 발상지로 하고 매년 봄과 가을에 대신을 보내 제사를 올리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을 때는 영고탑 관원이 망제(望祭)를 지내도록 하였다.³⁰ 건륭(乾隆) 연간에 이르러 봉금(封禁)을 설정하고 관리를 파견해 장백산, 북진(北鎭)의 무려산과 요(遼) 태조릉에 망제를 올렸다.³¹ 「조선여진분계도」에는 영고탑 오른쪽에 ‘망제산(望祭山)이 기재되어 있다.

17세기 명·청 교체를 배경으로 영고탑 일대가 중시되고,³² 특히 청과 조선 간에 국경 문제가 대두되면서 영고탑은 조선 영토의 북쪽을 대표하는 지명이 되었다. 영고탑에 대한 기술은 조·청 관계를 주시하는 태도와 무관

27 참고로 1676년(康熙 15) 길림(吉林)에 장군(將軍), 영고탑에 부도통(副都統)이 설치되었다.

28 柳條邊 호칭과 관련해 高士奇의 『扈從東巡日錄』에 따르면 “擣柳結繩，以界蒙古，南至朝鮮，西至山海關，有私越者，必置重典，故曰柳條邊”

29 『海東地圖』 「朝鮮女眞分界圖」. “鏡河 廣六里，長七十里，近有三山湖水注，雷吼聲聞數十里” “德林石 “廣三十里，長百餘里，孔洞不可數計，澄清凝璧，木生樺榆，夏無蚊蚋，鹿馬群嬉”

30 『聖祖仁皇帝實錄』 卷之七十 康熙十六年 十一月 二十七日. “禮部等衙門遵旨議覆、長白山、係本朝發祥之地、祀典宜崇。但民舍遼遠、不便建廟。請封為長白山之神。初次往封、遣大臣詣山擇地、設帳幄立牌致祭。其每年春秋二祭、道遠路濇、或雨水阻隔、應交寧古塔官員、在烏喇地方望祭。凡遇恩詔、差京官往祭者亦如之。得旨、是”

31 『高宗純皇帝實錄』 卷之二百一 乾隆八年(1743) 九月 二十七日. “遣官望祭 長白山，北鎭醫巫閭山，遼太祖陵”

32 효종 대(1649-1659) 이른바 영고탑회귀설이 거론되면서 영고탑 지명도 확립된다. 배우성, 「만주에 관한 지식과 조선후기 사회」, 『역사학보』 208(2010), 240쪽.

하지 않은 것이다. 또 이중환은 조선의 위치를 주변국과 비교해 서술한다. 바다를 건너 남쪽으로 가면 중국 절강(浙江)에 이르고, 평안도 북쪽의 의주(義州)가 중국 청주(靑州:山東省)에 해당하는데 대략 일본과 중국의 사이에 있다고 하였다. 그가 지리적으로 조선과 함께 중국과 일본을 시야에 두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지형에 이어서 이중환은 조선의 영역을 팔도(八道)로 구분해 기술하고 그 지세에 대해 개관한다. 즉 조선은 전체 길이가 3천 리이지만 동서(東西)로 천 리에 미치지 못하고, 동·서·남쪽이 바다에 면하며 산이 많고 들이 적다. 그로 인해 사람들이 유순하고 조심스럽지만 편협한 면도 있다고 서술한다. 그는 지리와 인심이 연관되는 것으로 이해한 것이다.

다음으로 이중환은 건국 연혁과 역사에 대해 서술한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첫째, 고대사에 기초해 팔도를 4개 지역으로 구분한다. 즉 변한과 진한의 경상도, 마한과 백제의 경기·충청도·전라도, 고조선과 고구려의 함경도·평안도·황해도, 그리고 예맥의 강원도이다. 둘째, 신화의 시대부터 조선에 이르기까지 '건치 연혁의 대략'을 설명하고, 역사적 계승이라는 면에서 조선의 정통성을 강조한다. 먼저 신라 이전에 전쟁이 끊이지 않아 전래하는 문적(文蹟)이 적으므로 고려 이후부터 상술할 수 있다고 전제한다. 그리고 단군에 대해 언급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자(箕子)와 위만(衛滿)의 통치를 상술한다. 이어서 삼한과 신라·고구려·백제의 성립, 신라의 삼국 통합, 고려의 건국과 삼한(三韓) 즉 삼국 통일, 조선의 고려 계승을 기술한다. 이는 기자 조선을 기점으로 삼한과 삼국이 성립된 점, 조선이 고려를 계승한 점 등을 강조한 것이다. 셋째, 고려-조선의 계승과 관련해 사대부의 연혁이 고려에서 시작되어 조선으로 이어진다고 서술한다. 고려-조선의 계승에서 가장 중요한 연관성을 사대부라고 인식한 것이다. 이중환은 고려를 역사인식의 시점(始點)으로 이해하면서 조선이 고려를 정통적으로 계승하고, 그

핵심이 사대부라고 인식하였다.

「팔도총론」의 도입은 조선의 지형·지리·지세와 건국 연혁 및 역사에 관한 서술이지만 그 내면에는 중국 중심 세계질서, 지리와 인심이 연관되는 풍수지리, 기자조선을 전제로 하는 역사인식, 삼한-삼국-고려-조선으로 이어지는 계승 의식, 사대부 중심의 관점 등이 반영되어 있다. 이는 팔도 편이라는 도 단위 지역서술에 앞서 산줄기 중심의 자연지리, 팔도에 기초한 지역 구분, 풍수지리, 세계관과 역사인식, 사대부 중심의 관점 등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지역서술의 항목이면서 지역 이해의 관점으로, 「팔도총론」에서 도입은 서론으로 기능한다.

IV. 지역서술의 담론 구성: 「팔도총론」 <경기>편을 중심으로

조선시대 관찬 지지는 대부분 경기 지역에서 시작한다. 반면 『택리지』의 「팔도총론」은 <평안도>편부터 시작하고 <충청도>편 다음에 <경기>편이 이어진다. <경기>편은 '경기와 충청도의 경계에 위치하는 칠장산(七長山)³³을 시작으로 대체로 경기 남부에서 북부 순서로 서술된다. 그런데 칠장산과 관련해 『신증동국여지승람』 죽산현(竹山縣) 산천 조에는 '칠현산(七賢山)'이 기재되어 있다.³⁴

『산경표』에 따르면 칠현산이 "일명 도종(道宗)으로 죽산 남쪽 10리에 있고 두 줄기로 나뉘며"³⁵ 한남금북정맥과 한남정맥의 분기에 해당한다. 한편 『해동지도』<죽산부>에는 읍기(邑基)의 남서쪽에 칠현산이 있고 그 아래 칠장사(七長寺)가 있으며, 칠장사를 지나 진천(鎭川) 방향으로 광혜원대로(廣惠院大路)가 이어진다.³⁶ 그런데 주기에는 칠장사가 "칠장산에 위치하고 고려 말 왜구로 인해 이 곳에 사서를 숨겼다"고 한다.³⁷ 그 내용은 『동사강목』 우왕(禡王) 5년(1379)의 기사에 실렸는데, 실록과 경사(經史)를 "왜구가 내지까지 함부로 들어오자 다시 죽주의 칠장사로 옮겼다. 칠장사는 지금의 죽산부 남쪽 15리의 칠현산(七賢山)에 있다"³⁸고 한다. 따라서 칠장사 일대는 칠장산 또는 칠현산으로 불린 것이다. 현재 칠장사를 기준으로 북쪽에 칠장산(492.1m), 남쪽에 칠현산(516.4m)이 있어, 본고에서는 <경기>편의 칠장산을 북쪽의 칠장산으로 비정한다.

33 『擇里誌』 「八道總論」 <京畿>, 33쪽. "竹山七長山卓立於畿湖交界"

34 『新增東國輿地勝覽』 제8권, 「京畿」 <竹山縣> 山川. "七賢山 在縣南十五里"

35 『山經表』 漢南錦北正脉. "七賢山 一名道宗, 竹山南十里, 分二岐."

36 광혜원은 현재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리로 추정된다.

37 『海東地圖』 「竹山府」. "佛宇七長寺 在七長山 麗末以倭寇藏史于此"

38 『東史綱目』 제16상. "倭寇闖入內地, 復移竹州七長寺 在今竹山府南十五里七賢山."

〈경기〉편은 내용적으로 개략(A), 구역별 설명(B), 저자의 평가(C) 등으로 나뉜다. 개략의 서술이 매우 짧고, 저자의 평가가 구역별 설명에 포함되는 A-B(C) 구성이다. 그리고 구역별 설명(B)은 지명 간 중심-주변 관계에 기초해 죽산·여주·광주·수리산·한양·개성 중심의 6개 구역 즉 공간 담론으로 구분된다. 즉 (1)죽산을 중심으로 남쪽과 서쪽의 지리정보를 포괄한 구역, (2)여주읍을 중심으로 남쪽과 북쪽의 지리정보를 포괄한 구역, (3)광주를 중심으로 하는 구역, (4)수리산을 중심으로 서북쪽·서쪽과 동남쪽의 지리정보를 포괄한 구역, (5)한양을 중심으로 동교(東郊)와 서교(西郊)의 지리정보를 포괄한 구역, (6)개성부를 중심으로 남쪽과 동쪽의 지리정보를 포괄한 구역이다.³⁹ 단 수리산 중심 구역은 산줄기를 기준으로 구획되는 한편 구역 내 강화부와 수원부를 중심으로 지리정보가 배열되고 있다. 강화와 수원이 2차 중심으로 기능하는 것이다.

먼저 구역 중심에 대해 살펴보자. 〈경기〉편에서 구역 중심은 크게 자연지명의 수리산과 행정지명의 죽산·여주·광주·한양·개성으로 나뉜다. 수리산은 경기 남부의 산줄기인 한남정맥에 속한다. 이증환이 『산경표』와 같이 산줄기를 구분해 명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팔도총론」 도입의 ‘조선산맥’과 〈경기〉편의 칠장산 줄기⁴⁰ 등의 기술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백두대간과

39 광문회본을 기준으로 각 구역 담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죽산 중심 구역 “竹山南有九峯山 …… 自竹山西由陽智 …… 風水悲愁，無可居處” (2)여주 중심 구역 “驪州邑治在江之南 …… 南則利川陰竹 …… 北則砥平楊根 …… 前溪太咽，非樂土也” (3)광주 중심 구역 “驪州西爲廣州 …… 廣州一境不可居” (4)수리산 중심 구역 “廣州西則修李山 …… 自此西北去 …… 修李西去 …… 東南行爲水原府 …… 渡江而北十五里，則爲京城南門” (5)한양 중심 구역 “咸鏡道安邊府鐵嶺一脈 …… 至今不築城，切可恨也” (6)개성 중심 구역 “渡津由長湍西行 …… 府南則豐德 …… 府東則長湍 …… 漣川有許眉叟穆故居”

40 『擇里誌』 「八道總論」 〈京畿〉, 33쪽. “竹山七長山卓立於畿湖交界，西北行，大斷於水踰峴爲平地，復起爲龍仁負兒山，爲石城山，爲光教山，自光教西北爲冠岳，直西爲修李山，以盡於西海.”

한남정맥을 파악하고 있다.⁴¹ 이는 도 단위 지역서술에서 산줄기가 구역을 나누는 기준으로 사용되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5개 행정지명은 죽산도호부, 여주목, 광주유수부, 한성부, 개성유수부에 해당하고 행정·군사의 주요 거점이다.

〈경기〉편에서 구역은 기본적으로 산줄기와 행정·군사 거점을 중심으로 나뉜다. 다만 수리산 구역이 강화유수부와 수원도호부를 중심으로 세분되어, 산줄기 중심의 구획이 행정·군사 거점과 무관하지 않다. 또 죽산이 구역 중심으로 서술되는 배경에 칠장산이 있고, 여주도 남한강과 연관해 구역 중심으로 서술되므로 행정·군사 거점 중심의 구획 역시 산줄기 및 강 등 지리와 연관된다. 따라서 지역서술에서 실제 산줄기와 행정·군사 거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역이 나뉘지고 구역별 서술이 전개된다. 이는 지방행정을 기준으로 항목을 나열하는 관찬 지지와 구별되는 점이다.

다음으로 구역 담론을 살펴보면, 구역에 따라 서술 분량이 크게 차이난다. 개성과 수리산 구역의 서술이 많고 한양, 여주, 죽산, 광주 구역 순이다.⁴² 개성과 수리산 구역의 서술이 〈경기〉편의 구역별 설명 중 약 80%를 차지한다. 구역 담론의 지명을 〈표1〉과 같이 정리해 보면 구역별 지명의 개수도 상당히 차이난다.⁴³ 〈경기〉편의 지명(총 147개) 중 개략 부분에 서술된 지명

41 이와 관련해 이중환은 『山經表』와 유사한 산지 분류 체계를 제시했다. 산줄기에 이름을 붙이지 않았지만 『산경표』의 臨津北禮成南正脈을 제외한 1大幹 1正幹 12正脈을 제시하였다. 단 海西正脈, 洛南正脈, 錦北正脈 등에서 일부 차이가 있다. 권정화(1999), 앞의 논문, 38쪽.

42 광문회본 기준으로 개략 1-4행, 죽산 4-5행, 여주 5-11행, 광주 11-15행, 수리산 15-63행, 한양 63-80행, 개성 80-130행이다.

43 〈표1〉에서 지명은 두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된다. 첫째, 지명은 위치를 기준으로 ㉠경기 지명, ㉡경기 이외 지명, ㉢외국 지명으로 분류된다. 〈경기〉편에서 ㉠지명 122개, ㉡지명 20개, ㉢지명 5개이다. 둘째, 지명은 각각 서술된 구역별로 분류된다. 동시에 구역 범위에 소속되는지를 고려해 구역 내 지명과 구역 외 지명으로 구분된다.

9개를 제외하면 수리산 구역 51개,⁴⁴ 개성 구역 45개, 한양 구역 23개, 여주 구역 13개, 죽산 구역 4개, 광주 구역 2개 등이다. 수리산과 개성 구역의 지명이 압도적으로 많다.

표1-구역 담론의 지명

| 1차 구역 | 2차 구역 | 구역 내 지명 | 구역 외 지명 |
|-------|-------|--|---|
| 竹山 | | ㉠七長山, 九峯山, ⁴⁵ 陽智 | |
| 驪州 | | ㉠楊根, 白崖村, 清心樓, 神勒寺, 江月軒, 馬巖, 利川, 陰竹, 砥平, 龍門山, 迷源村 | ㉡洪川 |
| 廣州 | | ㉠南漢城 | |
| 修李山 | 江華 | ㉠仁川, 富平, 金浦, 通津, 摩尼山, 甲串渡, 孫石項, 文殊山城, 永宗島, 燕尾亭, 喬桐島, 統禦營, 安山, 磬串里 | ㉠西江, 仙遊峰, 東大門, 弘濟院, 楊花, 後西江, 昇天浦 ㉡平山, 椒島, 義州, 昌城, 鴨綠江, 海美, 瑞山, 延安, 白川 ㉢遼陽, 瀋陽, 登萊 |
| | 水原 | ㉠金水山, ⁴⁶ 南陽, 文板峴, 花梁鎮, 大阜島, 鶴指, 燕興島, 安城, 陽城, 果川, 銅雀津 | ㉠南大門 ㉡西海, 牙山, 唐津 |
| 漢陽 | | ㉠楊州, 道峯山, 萬丈石峰, 三角山, 白雲臺, 萬景臺, 白岳山, 碑峰, 楊州, 抱川, 加平, 永平, 高陽, 積城, 坡州, 交河, 沙峴, 綠磬峴, 碧蹄嶺, 臨津渡 ㉡安邊, 鐵嶺 | |
| 開城 | | ㉠松岳山, 滿月臺, 錢鋪, 五冠山, 昌陵, 杜門洞, 大井里, 紫燕島, 貞州海, 步麓江, 紫霞洞, ⁴⁷ 男山, 龍首山, 進鳳山, 山臺巖, 靈通洞, ⁴⁸ 歸法寺, ⁴⁹ 花潭, 玄化寺, ⁵⁰ 大興洞, 聖居山, 朴淵, 萬壽山, 豐德, 靑石洞, 白峙, 臨津江, 澄波江, 永平江 ⁵¹ , 長湍, 麻田, 崇義殿, 善竹橋, 德積山, 昇天浦, ⁵² 白鶴山, 臨津江, 華藏山寺, 漣川, 朔寧 | ㉠龍仁 ㉡威化島, 江陵, 箕子殿 ㉢洛陽, 北邙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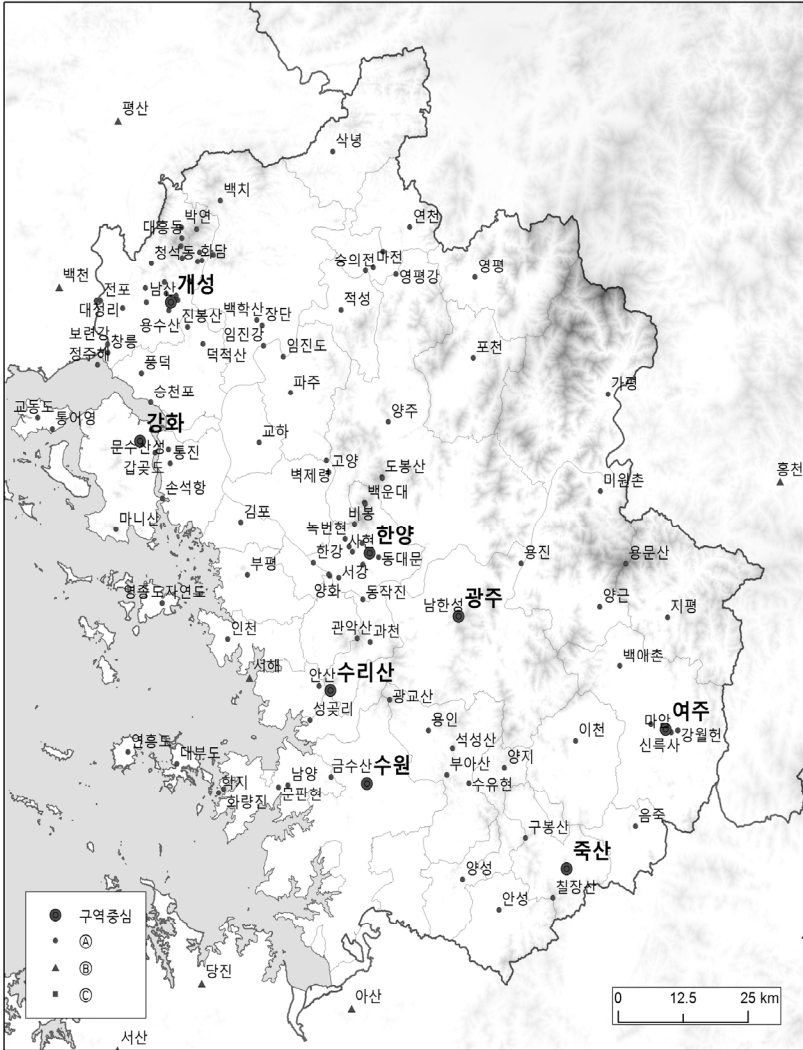
44 수리산 구역의 지명은 강화 구역 35개, 수원 구역 16개로 세분된다.

45 <경기>편에 따르면 “죽산 남쪽에 구봉산이 있다. 산이 빙 돌아있어 산성을 만들 만하고, 경기와 충청도를 잇는 도로에 위치”한다. 하지만 『신증동국여지승람』 죽산현의 기사에 “구봉산은 현 서쪽 22리에” 있다. 『해동지도』 <죽산부>의 경우 구봉산이 죽산부의 서쪽에 있다고 기술하고, 지도에는 구봉산이 읍기(邑基)의

북쪽에 그려져 오른쪽으로 영남대로(嶺南大路)를 두고 건지산(巾之山)과 마주한다. 본고에서는 <경기>편의 기술이 오류라고 판단하고, 『신증동국여지승람』과 『해동지도』에 근거해 구봉산을 현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하는 구봉산으로 비정한다.

- 46 <경기>편에 따르면 금수산은 수원과 아산 간에 위치하고 그 서쪽에 남양(南陽)이 있으며, 산 정상에 못에서 금이 난다고 전해진다. 그와 흡사한 내용이 『오주연문장전산고』 「천지편」에 있어 “화성(華城) 금수산에 우물이 있는데 물이 노랗다. 감여자(堪輿者)가 말하기를 그 속에 순금이 난다고 하였다.” 현재 수원-아산 간에 금수산이라는 지명을 찾을 수 없다. 하지만 “금수산에서 나온 다른 줄기가 서쪽으로 가서 남양부 치소에 이르는” 것을 고려하면, 금수산은 한남정맥의 증악산(增岳山)에 해당한다. 증악산은 치악산(鷓岳山)으로도 표기되며 현재 수원과 화성·안성 경계의 칠보산(七寶山)으로 추정되는데 보물 관련 설화가 있다. 본고에서는 금수산을 현재 칠보산으로 비정한다.
- 47 紫霞洞은 『韶漢堂集』 제13권 「亡妻王氏壙銘」에 근거해 개성 고려동(高麗洞) 북쪽으로 비정한다. 『韶漢堂集』 제13권 「亡妻王氏壙銘」. “만월대 뒤쪽 송악산 기슭에 있는 골짜기이다. 지금의 황해북도 개성시 고려동(高麗洞) 북쪽에 있는 자하동(紫霞洞) 마을로, 가을단풍이 우거진 것이 마치 붉은 노을이 피어오르는 것과 같다고 하여 자하동이라고 하고, 또 오색영롱한 구름이 늘 떠도는 것 같은 골짜기라고 하여 채하동(彩霞洞)이라고 했다고 한다.”
- 48 <京畿>편에 영통동(靈通洞)은 오관산(五冠山) 아래에 있고, 영통동과 귀법사(歸法寺)의 북쪽에 화담(花潭)과 현화사(玄化寺)가 위치한다고 쓰여 있다. 그런데 『燃藜室記述』 별집 제16권 「地理典故」의 <山川形勝>에 “花潭在靈通洞口 …… 自潭以上, 山回路轉, 沿溪屢渡至靈通洞, 洞在五冠山下.”이라고 쓰여 있다. 여행기 등에도 개성에서 성균관(成均館)을 지나 탄현(炭峴)을 넘어 북쪽으로 귀법사-화담-영통-오관산으로 이어진다. 그 경로는 『海東地圖』 「松都」에서도 확인된다. <京畿>편에서 영통동의 위치가 모호하게 서술됨으로써 일대 지명의 위치가 애매진 것이다. 본고에서는 여행기와 고지도 등에 기초해 영통동·귀법사·화담·오관산·산대암(山臺巖)의 위치를 조정한다.
- 49 歸法寺는 경기도 개풍군(開豐郡) 영남면(嶺南面) 용흥리(龍興里) 탄현문(炭峴門) 밖에 있던 사찰이다. 김창현, 『고려개경의 구조와 그 이념』(신서원, 2002).
- 50 玄化寺는 경기도 개풍군(開豐郡) 영남면(嶺南面) 현화리(玄化里) 영취산(靈鷲山)에 위치한다. 김창현(2002), 위의 책.
- 51 永平江은 현재 한탄강으로 비정한다.
- 52 昇天浦와 관련해 『海東地圖』 「豐德府」에 옛 성터 아래 승천진(昇天津)이 그려져 있다. 주기에 따르면 승천포고성(昇天浦古城) 아래 승천포원(昇天浦院)이 있었다 (“昇天浦院 在昇天浦古城下”). 따라서 승천진이 승천포에 해당하고 백마산(白馬山) 인근에 위치한다.

지도 <구역 담론>의 지명 분포⁵³



53 지도에 사용된 조선시대 지방행정의 면(polygon)은 '조선시대 전자문화지도'(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를 활용한 것이다. 지도는 김현중(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과정)이 제작하였다.

그런데 구역별 서술 분량의 차이는 설화 서술과 관련된다. 개성과 수리산 구역의 담론에서 상당 부분 설화가 차지하고 있다. 수리산 구역의 경우 설화에서 추출된 지명이 12개인데, 이는 수리산 구역의 지명 중 약 24%에 해당한다. 그리고 구역 담론에 서술된 설화를 정리하면 광주 구역(병자란), 수리산 구역(정묘란·병자란·翼靈君), 한양 구역(축성·임진란), 개성 구역(作帝建·禡王·杜門洞·崇義殿·鄭夢周·崔瑩·병자란) 등이다. 전쟁 관련 설화가 두드러진다. 특히 수리산 구역의 담론에서 강화를 중심으로 전쟁 상황과 군사 요충지가 상세히 서술된다. 또 개성 구역 담론에서는 고려-조선의 왕조 교체와 관련된 설화를 통해 여말 선초의 상황이 구체적으로 서술되고 그 행간에 고려와 조선에 대한 역사인식이 드러난다. 이중환은 구역 담론을 구성하면서 역사적 설화를 중시한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목성관(睦聖觀)은 발문에서 『택리지』를 ‘동국사(東國史)’⁵⁴ 즉 조선의 역사서에 비견하였다.

역사적 설화를 중시하는 경향은 거주 여부(‘可居’)를 평가하는 기술에도 나타난다. <경기>편에 거주 평가의 기술이 7차례 있다(표2). 평가는 살만한 곳이 아님(‘不可居’·‘無可居’), 살기에 적당하지 않음(‘不宜居’), 낙토가 아님(‘非樂土’) 등으로 구분된다.

표2-‘가거(可居)’의 평가

| | |
|----------|--|
| 남한성 | 內夷淺而外峻絕，…… 城內則不險而城外山脚帶殺，且重鎮若有事爲必爭之地，故廣州一境不可居 |
| 안성 | 邑治外雖不善，地有殺氣不可居 |
| 한강 이남 마을 | 村落凋弊風水悲愁無可居 |
| 한양 동교·서교 | 二郊俱土薄民貧，少可居處 |
| 연천·마전·석녕 | 土薄民貧少可居處 |
| 지평·양근 | 亂山深峽皆不宜居 |
| 미원촌 | 山中雖少恢拓地，既深阻，氣亦凄寒，四山不雅，前溪太咽，非樂土也 |

54 睦聖觀의 발문(1752년). “其論歷代之沿革·人材之盛衰·風俗之污隆，輒致意焉。其事略而蒐集廣，其說約而包括盡。儼然一部東國史也.” 안대회 외 역(2018), 앞의 책, 518쪽.

거주 여부를 평가하는 근거는 살(殺·殺氣)과 지형, 전란, 경제적 빈곤(土薄民貧) 등이다. 그 중 살은 풍수(風水)에서 사람을 해하는 요소를 가리킨다.⁵⁵ 『택리지』에서는 “산허리 위로 바위가 없어서 (산이) 웅대하면서도 살기가 적다”, “흙으로 된 봉우리에 띠처럼 두른 바위가 모두 밝고 빼어나서 살기가 적다”⁵⁶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리고 지형의 좋고 나쁨도 실질적으로 풍수에 기초해 평가되고, 경제적 빈곤 역시 땅의 비척(肥瘠)과 밀접히 연관되므로 전체적으로 거주 여부를 평가하는 데 지리 요소가 중시된다. <경기>편에서 풍수와 지리, 경제력 등을 기준으로 거주를 평가하는 것은 「복거총론」의 내용과 상통한다. 즉, 이증환은 거주를 선택하는 기준으로 지리·생리·인심·산수 등을 제시하고 그 중 가장 중한 것이 지리이며, 네 가지를 모두 갖추어야 낙토라고 하였다. 그렇기에 조광조는 물론 정약용도 산수가 아름답다고 평가한 미원촌에 대하여⁵⁷ 이증환은 지리가 좋지 않아 낙토가 아니라고 하였다.⁵⁸

주목할 것은 거주 여부를 평가하는 근거로서 전란이 언급된 점이다. 이증환은 남한성이 “중요한 진영이어서 유사시 반드시 전장이 되므로” 살 수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복거의 기준으로 ‘생리’를 제시하고 ‘무천(買遷)’ 특히 수운을 강조하면서도 교통 요로와 임해 지역이어서 거주할 수 없는 곳으로 동래(東萊), 영강(溟江·진주 남강) 이남의 13읍, 영암(靈巖) 동남

55 살은 풍살(風殺), 수살(水殺), 압살(壓殺), 파살(破殺), 충살(衝殺) 등으로 구분하고 殺 대신 煞이라고도 쓴다. 일례로 양택(陽宅)의 조건을 설명하는데 바람, 물, 산 등이 택지를 침범하여 사람을 상하게 하는 요소를 살이라 한다.

56 『擇里誌』 「卜居總論」 <山水> 59쪽. “凡大小白泉石皆在洞府低平處，山腰以上無石，故雖雄大而少殺氣” “土峰帶石皆明穎少殺.”

57 丁若鏞의 발문. “然北江之濱，如春川之天浦·楊根之迷源更勝也” 안대회 외 역(2018), 앞의 책, 526쪽.

58 『擇里誌』 「八道總論」 <京畿>, 34쪽. “山中雖少恢拓，地既深阻，氣亦淒寒，四山不雅，前溪太咽，非樂土也”

해상의 8읍, 충주, 남한성 등을 지적한다.⁵⁹ '생리'가 복거의 기준이면서 거주 불가의 근거가 되는데, 그 배경에 전란이 있다. 그래서 「북거총론」에서 <지리>·<생리>편보다 <산수>편의 서술 분량이 월등히 많고, 난시(亂時)에 거주하는 '피병지(避兵地)'가 강조된다.

저자 이증환은 지역서술에서 전란 관련 설화를 비중 있게 기술하고, 거주 평가의 근거로 전란을 강조하며 피병지의 정보를 정리한다. 이는 임진년과 정묘·병자년 전쟁이 조선 사회에 미친 바가 중대하다고 인식한 것이다. 고려-조선의 왕조 교체와 관련된 설화 또한 저자의 역사와 현실 인식을 내포한다. 일반적으로 지리 담론에서 설화는 공간을 '장소(place)'로 구체화한다. 이증환은 「팔도총론」에서 구역의 지리정보를 설화라는 방법(narrative)을 통해 구체화하는 한편, 주로 전란과 정치 관련 설화를 채택함으로써 역사와 현실 인식을 전달하고 있다.

<경기>편의 지역서술에서 산줄기와 행정·군사 거점을 종합해 구역이 나뉘고, 구역별로 지명 간 중심-주변 관계에 기초해 지리정보가 체계적으로 기술되는 동시에 설화를 통해 역사와 현실 인식이 강조된다. 따라서 『택리지』에서 도 단위 지역서술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서술이 「팔도총론」의 도입에서 제시된 서술 항목과 지역 이해의 관점을 반영한다. 둘째, 구역 범위가 담론 내용과 상관되는데, 구역은 지리와 행정 등의 요소를 전제로 역사와 현실에 대한 저자의 관점에 따라 변동하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그와 관련해 「팔도총론」에서 이증환은 지리적 인접과 풍토, 풍속, 사대부 거주 등을 근거로 권역을 제시한다. <경기>편에서 한강 이남, 여주와 백애촌, 이천과 음죽, 한양 동교와 서교 등이 각각 권역으로 서술되고 있다.⁶⁰ 그것은 생활권 기준의 지역서술로 평가되거나⁶¹ 유사한 자연

59 노도양, 「팔역지 '가거지' 해설」, 『지리학』 1(1963); 허성제, 「귀농·귀촌지 선정에 있어서 이증환의 <택리지> 재조명」, 『농촌건축』 제14권 3호(2012).

환경, 생활 모습 및 풍속의 동질성, 기능적 연관성을 준거로 설정된 지리적 지역으로 설명되기도 한다.⁶² 하지만 「팔도총론」에서 권역 설정은 매우 제한적이고, 도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일정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권역은 내부적으로 구조화되어 지표에 반영되는 경관을 갖춘 단위로서 지역이라 할 수 없다.

셋째, 지역서술의 구조는 「팔도총론」의 저술 방법과 관련된다. 이중환은 직·간접의 경험과 지식에 기초해 구역을 설정하고 지리정보를 체계적으로 재구성했을 것이다. 그 방증으로 「팔도총론」에서 지리정보의 방위가 종종 실제와 차이난다. 저자가 구역 중심의 장소를 기준으로 주변을 설명하면서 지명의 위치나 방향 등을 서술한 때문이다. 그 예로 남한강은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지만 <경기>편에는 동서를 가로지르는 강으로 서술되고 있다.⁶³ 이는 『해동지도』 「여주목」에 그려진 “긴 강이 서쪽으로 흐르고, 북쪽에 산마루가 이어지는”⁶⁴ 풍경과 일치한다. 이중환은 구역을 전제로 지지나 지도 등을 활용해 서술하였을 것이다.

60 『擇里誌』 「八道總論」 〈京畿〉. “自竹山西由陽智散爲漢南諸邑, 并村落凋弊風水悲愁無可居處”; “與邑村通野, 東南曠遠氣色清爽, 二村並多世居士大夫之家”; “南則利川陰竹大同俗”; “楊州·抱川·加平·永平爲東郊, 高陽·積城·坡州·交河爲西郊, 二郊俱土薄民貧, 少可居”

61 이중환은 「팔도총론」에서 도별 행정구역을 따르고 있으나 풍속이 같을 경우 여러 개의 군현을 합쳐서 서술하는 등 기존의 행정구역 중심의 사고에서 탈피하여 생활권 중심의 등질 지역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오상학(2015), 앞의 책, 378쪽.

62 전중환, 「『택리지』에 나타난 “국토지리”의 서술 방식과 지리적 논리」, 『대동문화연구』 제93집(2016), 22쪽.

63 『擇里誌』 「八道總論」 〈京畿〉, 33쪽 “水路則自忠州沿江西下 (중략) 驪州邑治在江之南”

64 『海東地圖』 「驪州牧」 “形勝 長江西去複嶺北來”

V. 맺음말

이상으로 『택리지』를 텍스트로서 이해하고 그 서술구조를 분석하였다. 「팔도총론」은 도입과 팔도 편의 체재에 기초한 도(道) 단위 지역서술이다. 도입은 서론에 해당하며 지역서술의 항목이자 지역 이해의 관점을 제시한다. 지역서술의 내용은 개략, 구역별 설명, 저자의 평가 등으로 나뉜다. 특히 구역별 설명은 지리정보의 배열과 관계성에 근거해 지명 간 중심-주변 관계로 체계화해 서술되는 구역 즉 공간 담론들로 구성된다. 그리고 구역 담론에서 산줄기와 행정·군사 거점을 중심으로 나뉜 구역에 따라 다양한 지리정보가 체계적으로 서술되는데, 역사적 설화를 통해 역사와 현실 인식이 강조된다.

『택리지』에서 이증환은 지방행정을 기준으로 도 단위 '지역'을 전제하지만, 행정 중심의 태도에서 벗어난다. 그는 「팔도총론」 도입에서 제시한 서술 항목과 관점을 전제로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수집한 지리정보를 체계화하고 구역 담론을 구성한다. 따라서 지역서술에 대한 구조적 접근을 통해 「팔도총론」을 포함한 『택리지』의 한 축이 지역지리인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擇里誌』(光文會本)(1912).

『山經表』.

『海東地圖』.

2. 단행본

배우성, 『독서와 지식의 풍경: 조선 후기 지식인들의 읽기와 쓰기』. 돌베개, 2015
양보경, 「지역 정보의 보고, 지리지」. 『한국역사지리』, 푸른길, 2011, 289-335쪽.

오상학, 『한국 전통지리학사』. 들녘, 2015

이문중, 『이중환과 택리지』. 아라, 2014

이중환 저, 안대회 외 역, 『완역정본 택리지』. 휴머니스트, 2018

최원석, 『사람의 지리 우리 풍수의 인문학』. 한길사, 2018

3. 논문

강석화, 「조선 후기 백두산에 대한 인식의 변화」. 『조선시대사학보』 56, 2011, 195-224쪽.

권정화, 「이중환의 국토 편력과 지리사상」. 『국토』 208, 1999, 36-41쪽.

노도양, 「팔역지 ‘가거지’ 해설」. 『지리학』 1, 1963, 91-96쪽.

배우성, 「擇里志에 대한 역사학전 讀法: 필사본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한국문화』 33, 2004, 213-246쪽.

_____, 「만주에 관한 지식과 조선후기 사회」. 『역사학보』 208, 2010, 235-269쪽.

신은경, 「지리공간의 담론화 과정에 대한 일고찰」. 『정신문화연구』 114호, 2009, 313-343쪽.

안대회, 「『택리지』의 구전지식 반영과 지역전설 서술의 시각」. 『대동문화연구』 제93집, 2016, 41-74쪽.

_____, 「이중환의 『택리지』 개정과 이본의 형성」. 『민족문화연구』 제79권, 2018, 195-222쪽.

이도훈·김세호·임영길, 「『擇里志』 異本考」. 『대동문화연구』 제93집, 2016, 99-133쪽.

임영길, 「택리지 다시 읽기: 키워드, “사대부를 통하여”」. 『대동문화연구』 제93집,

2016, 75-97쪽.

전종한, 「『택리지』에 나타난 “국토지리”의 서술 방식과 지리적 논리」. 『대동문화 연구』 제93집, 2016, 7-40쪽.

최인실, 「『택리지』 초기 필사본 추정을 위한 서지적 고찰」. 『서지학보』 제40호, 2012, 155-174쪽.

허성제, 「귀농·귀촌지 선정에 있어서 이중환의 〈택리지〉 재조명」. 『농촌건축』 제14권 3호, 2012, 121-128쪽.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택리지』를 텍스트로서 이해하고 그 서술구조를 분석하였다. 「팔도총론」은 도입과 팔도 편 의 체재에 기초한 도(道) 단위 지역서술이다. 도입은 서론에 해당하며 지역서술의 항목이자 지역 이해의 관점을 제시한다. 지역서술의 내용은 개략, 구역별 설명, 저자의 평가 등으로 나뉜다. 특히 구역별 설명은 지리정보의 배열과 관계성에 근거해 지명 간 중심-주변 관계로 체계화해 서술되는 구역 즉 공간 담론들로 구성된다. 그리고 구역 담론에서 산줄기와 행정·군사 거점을 중심으로 나뉜 구역에 따라 다양한 지리정보가 체계적으로 서술되는데, 역사적 설화를 통해 역사와 현실 인식이 강조된다.

이중환은 지방행정을 기준으로 도 단위 '지역'을 전제하지만, 지역서술에서는 행정 중심의 태도에서 벗어난다. 그는 「팔도총론」 도입에서 제시한 서술 항목과 관점을 전제로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수집한 지리정보를 체계화하고 구역 담론을 구성한다. 결론적으로 지역서술에 대한 구조적 접근을 통해 「팔도총론」을 포함한 『택리지』의 한 축이 지역지리서인 것을 알 수 있다.

투고일 2019. 9. 23.

심사일 2019. 10. 22.

게재 확정일 2019. 11. 21.

주제어(keyword) 택리지(Taexriji), 팔도총론(Paldochongron), 경기(Gyeonggi), 지역서술(Regional description), 담론(discourse)

Abstracts

A Study on the Regional Description of *Taexriji*
: Focusing on *Paldochongron*
Kim, Sung-hyun

In this paper, we understood *Taexriji* as a text and analyzed its narrative structure. *Paldochongron* is regional description based on the system of introduction and Paldo volumes. The introduction corresponds to the introduction and presents an item of regional description and a view of local interests. The contents of regional description are divided into outline, section by section, and author's assessment. In particular, the description by area consists of zones, or spatial discussions, which are systematically described as central-ambient relations between geographical information and geographical names based on their arrangement and relationship. And various geographical information is systematically described according to the area divided around the mountain range and the administrative and military bases in the district discourse, and history and reality awareness are emphasized through historical narratives.